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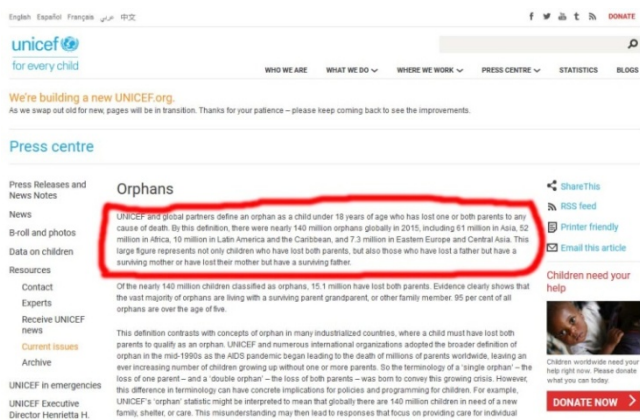
고아원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4 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빠져야하는(?) 단기선교가 아니라서 이
곳의 기후와 문화에, 급하지 않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더운 날씨인데
현지인들은 긴바지와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장갑도 씁니다. (헐...) 그들의
복장이 그렇게 처음에는 무척 이상했는데,
뜨거운 햇볕으로 부터, 파리, 모기 등의
해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걸
알고나서는 저도 자연스럽게 긴바지와 긴팔에 정착하게 됐네요. 장갑은 도저히 못 끼겠지만... 신기하게 몸도 더위를
덜 탑니다. 저는 선교지 체질인가봐요. ^^



2

몇몇 아이들은 부모와 친지들이 와서 키우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이상하죠. 고아원인데 무슨 부모가 와서 데려가냐?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적히는 International NGO 입니다. 그래서 UN
산하기관인 UNICEF 의, 고아에 대한 정의를 공유합니다. 링크를 보시면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구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없으면 고아로 정의합니다. (https://www.unicef.org/media/media_45279.htm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eb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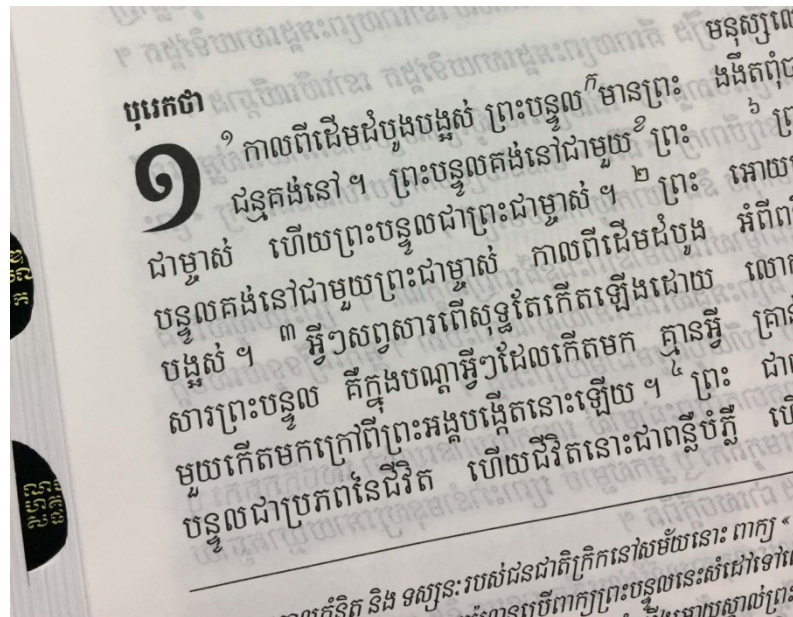


UNICEF and global partners **define an orphan** as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who has lost one or both parents** to any cause of death... (중략)... This large figure represents not only children who have lost both parents, **but also those who have lost a father but have a surviving mother or have lost their mother but have a surviving father.**

무기수(살인)로 복역중인 아빠, 다리가 없는 (장애인) 아빠, AIDS 로 죽은 엄마... 이 곳에 온 아이들의 사연은 대부분 불쌍합니다. 양친이 없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편부나 편모는 하루종일 공장에서, 혹은 논이나 밭에서 일 해야 먹고 사니까요. 자식들을 여기 고아원에 맡겨야 맘 편히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좀 나아져서 데려가면 그나마 좋은 경우구요. 이제 심부름 시키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커서 이모가,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할머니가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요. 나이가 차서 나간 아이들도 물론 있구요. 그래서 현재 29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3

일상이 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5 시에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6 시에 아침 식사 후 7 시까지 오전반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리고 11 시 좀 넘으면 돌아옵니다. 점심식사 하고 나면 오후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중간중간 아이들은 피아노나 기타를 배웁니다. 주일에는 인근 섬 초등학교에 출장예배(?)를 가는데, 마치고 오는 길에 메콩강변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흔치 않은 행사지만 근처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캠프에 다녀 오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 구절 외우고, 요즘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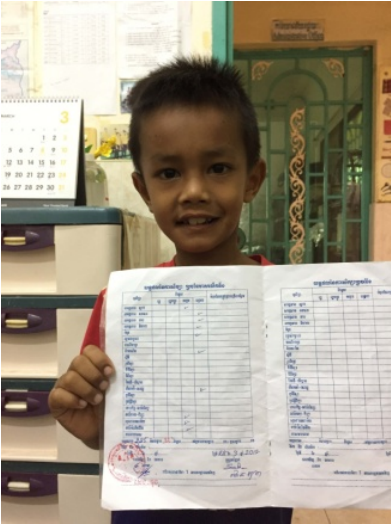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 90%의 아이들은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애들이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다는 느낌이 종종 듭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책을 읽는게 아니라, 글자만 읽는다는 느낌? 행간은 내 인생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내면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턱 위에 자신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여기 풍경이 요즘, 망고가 열리는 철이라 나무에 올라가 망고 따고, 바나나 따고, 그 외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과일들을 따서 씻어 먹고 있는 꼬마들이 많네요. 고아원 담장 안에 과일 나무가 여럿 있습니다. 때 되면 큰 애들이 작은 애들 앉혀 놓고 머리로 깎아 주고요. 놔두면 자라는게 나무라 가끔 정리도 하는데, 나무 꺾다가





맛있는 벌레 나왔다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성적표도 받아옵니다만,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성적이 좋을리 없지요. 글자를 알아야 성경도 읽을텐데 말입니다. 글자를 모르니 제게 성적표 내밀 때는, 싸인을 받아서 선생님 갖다줘야 하는데 본인이 몇 등인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 순수 그 자체요 -.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어야 분발도 하고 그럴텐데... 여기에서 저는 완전히 잔소리꾼입니다. 밥 먹고 나면 이빨 닦아라, 샤워할 때는 비누를 사용해라, 놀고 나면 손 씻어라, 성경 읽어라, 썩어라, 외워라, 집에서 애들한테 했던 잔소리의 열배는 하는 것 같네요. ㅋㅋ 우리 어머니도 내게 이렇게 잔소리 하셨었나 싶기도 하고... 이빨 안 닦아서 충치로 고생하는 애들도 서넛 있어서 치과 다녀왔지요. 샤워할 때 비누없이 맹물로만 대충해서 피부 질환 생기고 그게 심해져서 몇일 병원에 다닌 녀석이 있지를 않나, 고아원 마당의 모래밭은 애들 놀기는 좋는데 개들이 똥오줌을 싸서 위생상 별로 안 좋아 고민스럽네요. 밤에는 개 두 마리가 방범이라 그걸 안 키울 수도 없고... 돌아가면서 부지런히 또 그런거 치웁니다. 날씨가 더우니 반나절이면 딱딱하게 굳거덩요. 하하

5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차를 한대(27 만km 된 싼타페) 무사히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도착한 차를 찾기 위해) 세금(이게 안 찾아가고 세관에 오래 놔두면 연체료가 붙더군요. 차는 왔는데, 낼 돈이 없어서 고민스러웠는데) 내라고 연보를 모아주신 여러 교회와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도 잘 찾았습니다. 작은 오토바이 한대에 온 식구가 다 타고 다니는 이 동네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다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저희 식구들도 적응을 잘 해서 동화 됐더랬습니다. ^^ 그 때도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차를 보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함께 즐거이 동역해 주시는 분들 덕에 외롭지 않고 힘이 납니다.

집 안에 작지도 않은 (보통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발견되면 잡느라 호들갑인데, 며칠 전에는 아들이 부선을



떨길래 가봤더니 전갈 한 마리가 (!) 있어서 조금 긴장했네요. 다행히 그게 별로 빠르지는 않아서 어렵지 않게 집 밖으로 몰아 냈습니다만, 좀 조심해야겠네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구멍도 찾아 막아야겠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결혼식 같은 잔치를 하면 아예 길을 막고 무대를 꾸미는데, 고성방가가 문화라 밤 늦게까지 시끄럽습니다. 집 앞에 무대가 설치된 얼마 전에는 베이스 우퍼 진동에 창문들이 박자에 맞춰 흔들리고, 아내는 머리까지 아프다고

하더군요. 입을 다운 받아서 재 봤더니 100 데시벨... 공연은 밤 11 시에 마친다고 하길래 잔치집 호스트 찾아가서 좀 일찍 끝내 달라고 사정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서 일하셔서, 그 터 위에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공동체와 이 땅 캄보디아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올해는 7 월에 총리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뽑는 선거가 되며, 선거 후의 어떤 정국에도, 변함없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김봉짚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하준, 민준, 하임)
선교사 드림

